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중앙대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이루어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및,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개관하였다. 이러한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에 대한 종합을 토대로,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논의가 시도되었다: 1)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영향, 2) 부모의 자녀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와 압력, 3)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 친구관계와 일탈행동에 대해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1) 친구 사회적 지원의 증가와 부모나 교사 사회적 지원의 감소, 2) 일탈행동 촉진자로서 친구와 관련된 생활 환경의 개선, 3) 일탈 청소년 하위집단별 다양한 친구관계 유형. 한편 교사학생관계와 일탈행동에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점이 정리되었다: 1)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 2)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의 회복, 3) 처벌의 효과에 대한 숙고.

주요어 : 청소년 일탈행동, 인간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

[†] 교신저자 : 박영신,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spark@inha.ac.kr

부모로부터 포기된 자녀, 부모가 싫어 절대 집에 안가는 자녀

부모로부터 '자녀 포기각서' 받은 장미향 양

"우리 엄마다!" "올 텐데, 온다고 했는데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2년 12월 24일 안양여자소년원. 방마다 쇠창살에 매달린 소녀들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했다. 1년 중 하루 종일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날. 하지만 이날 부모를 만난 소녀는 140여명 중 60여명 뿐이었다.

장미향(14세, 가명) 양의 부모도 오지 않았다. 이달 말 6개월간의 소년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하지만, 장미향 양은 청소년 쉼터에서 살게 된다. 아버지와 계모가 소년원에 '자녀 포기각서'를 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3년 1월 21일)

부모로부터 '자녀 포기각서'를 전달받은 장미향 양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 부모나 청소년들은 아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든 자녀 입장에서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부모와 자녀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이다. 특별히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독립된 개체로서 상호작용한다기보다, 확대된 자기로서 받아들이고 존재의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에 비추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은 인류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각하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표상(Lee, Park, & Kim,

2002a; 2002b)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각을 내면화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이 만약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혼의 상처를 받는 일이 아니 될 수 없을 것이다.

장미향양과 같이 부모로부터 '자녀 포기각서'를 전달받게 된 청소년 자녀가, 과연 인간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소년원에서 나온다고 해서 일탈행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청소년이 계속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단순히 일탈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부모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동시에 이 사회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동설한에 가출하여 오갈 데 없이, 술집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녘 술집 앞의 형클어진 거리에 나와 쭈그리고 앉아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러한 생생한 모습을 도시의 뒷골목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가출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을 담은 사진(조선일보, 2003년 1월 18일: 박영신, 김의철, 2004, p.371 [사진 5. 1] 참고)과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청소년 가출의 책임이 상당 부분 가정에 있으며, 사회도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그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뷰하였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싫어 집엔 절대 안 가요" 그들은 그렇게 답하였던 것이다. 부모가 싫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부모가 싫어서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항변을 들으며, 가출의 모든 책임을 가출한 청소년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커녕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이윤을 챙기는 악덕 상인들의 상술이, 이들을 점차 더해 나오기 어려운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렵다.

일탈행동 이해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이며, 두 번째 예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등을 돌린 경우이다. 첫 번째 예와 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청소년 일탈행동을 촉발시키고 가속화시키며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은 아래에서 언급할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확인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 두 번째의 예에서, 가정을 버리는 행동의 주체는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예도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관계에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목표 하에 이루어졌던 자극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부모가 지각한 현실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현실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두 예의 경우 모두, 자녀의 일탈행동 결과에 대해 부모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앞에서 제시한 두 예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자신의 기질적인 원인이나 또는 개인적인 심리 및 성격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얼마나 깊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서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각각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해 나가는가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인 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환경변인으로서 인간관계 변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인간에 대해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바처럼, 인간은 혼자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물론 인간의 삶에서 물질과의 관계라든가 자연과의 관계 등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의 핵심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외에, 한국 문화에서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화특수성을 고려할 때도 인간관계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때로는 '인맥'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사회적 출세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저버리고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사회악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여하튼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특별히 중요한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청소년기라는 구체적인 발달단계에서 인간관계가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부모에 대해 크게 의존하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점차 심리적인 이유(離乳)를 해 나가면서 또래들과의 관계가 더욱 활성화된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보다 성숙해 나가면서,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과 관계의 비중이 달라지고 상호 교류의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에서의 교사학생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들 중의 하나로 이해해 볼 때, '청소년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에 대한 모형'(김의철, 박영신, 1999, p. 101, [그림 1] 참고)을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

컨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수직적인 영향으로서 가정환경 중에 부모자녀관계를, 수평적인 영향으로서 또래환경 중에 친구관계를, 사각적인 영향으로서 학교환경 중에 교사학생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유형의 인간관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환경특성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행동을 형성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청소년의 행동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정환경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특성과,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보다 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정이 갖추고 있는 외적인 특징들, 즉 부모의 교육정도, 직업, 경제적 수준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일탈행동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소년원생과 중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소년원생 부모가 중 고등학생 부모보다 사회경제적지위의 면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비록 소년원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범법 행위로 인해 법적 제재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소년원생에 대한 연구에서와 유사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의 부모를 비교한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2)의 연구에서

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가 고등학생 부모보다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두 집단은 친부모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 고등학생은 친부모(97.3%)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친부모(81.0%)의 비중이 낮고, 오히려 편부모 등(편모 7.5%, 편부 7.1%, 계부 2.4%, 계모 1.6%, 기타 0.4%)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 내에서 보호관찰 경력에 따른 가정의 구조적 환경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 결과도 있다. 한기혜와 박영신(2003)의 분석에 의하면, 보호관찰 경력에 따라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보호관찰 재범 청소년은 초범 청소년보다, 친부모인 경우가 훨씬 적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와 같은 시설에 수감되거나 위탁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연구결과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일탈행동을 훨씬 적게 하는가?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든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시설에 수감되거나 위탁된 청소년들은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회를 부조리한 것으로 뒤틀리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같이 나쁜 짓을 하고도 부모가 '뺨'을 쓴 애들은 경찰서에서 다 풀려났다"고 그들은 분노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더 나쁜 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도와줄 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에게는, 그것이 지각된 현실이 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 438~439)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면접하여 사례분석한 결과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개시교육에 조차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오토바이 절도 청소년의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보호관찰소에서 2001년 6월 7일에 면담한 초범의 남자 청소년이었다.

면담자: "어쩌다가 오늘 보호관찰소에 오게 되었나요?"

청소년: "골목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옆 땅바닥에 오토바이 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토바이를 너무나 타고 싶었기 때문에, 같이 있던 친구하고 오토바이 키를 주워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

면담자: "공범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청소년: "그 오토바이를 같이 탔던 친구는 이미 소년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있고, 나는 그 경력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만 보호관찰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본인이 이러한 일들을 해서 보호관찰소에 오기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청소년: "고1 때 아버지가 집에 온 날, 친구들을 만나려고 나가려 하는데 아버지가 밤이 늦었다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나는 이미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이 날라 오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 충격 이후에 학교 다니기도 싫고 해서 자퇴했습니다."

면담자: "그 사건 뒤에 부모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청소년: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어쩌다가 한번씩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나를 혼내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을 늘 방해만 했습니다."

면담자: "그럼 어머니는 어떠했나요?"

청소년: "어머니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기억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한 때는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나를 버리고 나간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의 관심이 없어진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연담자: "그럼 고민이 있든지 할 때 누구하고 의논하나요?"

청소년: "친구하고 의논합니다."

연담자: "친구를 믿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청소년: "친구는 자주 만나고 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연담자: "방금 '하는 짓'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청소년: "술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거예요."

연담자: "지금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럴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 "그런 건 없는데요. 그때그때 되는데로 사는 거지요 뭐."

연담자: "자네는 머리도 좋아 보이고, 앞으로 목표를 세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소년: (냉소적인 표정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듯) "내가 잘 될 리 없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연담자: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보면서,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서에 붙잡혀 갔던 아는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가 곧바로 찾아가 '뺨'을 쏜 애들은 풀려났어요. 개가 나보다 훨씬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풀려 났다구요. 흥!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되고, 연락되어 봤자 '뺨'도 없으니까 소용도 없지만, 어쨌든 곤장 넘겨져서 이렇게 재판 받게 되고, 결국 보호관찰까지 받게 된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빈정대는 말투 속에는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다.)

사례분석의 대상이었던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기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자기를 무심하게 내팽개친 나쁜 사람이라는 분노를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장하면서 칭찬이나 격려를 전혀 경험도 해 보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았으며, 사랑이나 배려와 같은 단어들로 표상되는 세계는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느껴졌다.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얼굴 표정이었으며, 오히려 '뺨'(배경)이 없어 혜택을 못 받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였다."(p. 443) 여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혈연관계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p. 459)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유야 어쨌든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것이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히 자기에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거나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때만큼 비참함과 패배감을 경험하는 때는 없을 것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인식하게 될 때, 자녀의 영혼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병들게 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상처는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공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만을 비정상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외의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를 불신하게 된 자녀는, 다른 어떤 관계도 건전하게 형성해 나가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일탈 청소년들에게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무관심이 더욱 자녀들에게는 비정하게 느껴지고 정신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p. 460)

“그런데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경험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버려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버려졌다는 경험은 가능하다. 물론 미혼모가 아이를 방기하는 등 물리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이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지각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버려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 속에서 지각된 세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들을 통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p. 461)

위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탈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로 인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있고, 일탈행동의 책임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볼 때 일탈 청소년이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탈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만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결벽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많은 일탈 청소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혈연관계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

험'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의 높고 낮음 보다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인 가정환경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문제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연구들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한다. 물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으면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한다고 완전히 정비례하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완전 정적 상관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낮아도 부모로부터 따스한 정서적 지원을 받고 부모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높아도 무관심하게 방임되고 있거나, 철저하게 무시 또는 거부되고 있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자녀 일탈행동의 정도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또는 바람직한 사회적 지원과 어느 정도 정적인 상관을 갖는 데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적이고 구조적이며 물리적인 환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각된 심리적인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단 물리적인 환경이 심리적인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때,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그 자체보다는, 부모자녀관계라는 심리적인 환경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청소년 자녀 일탈행동과의 관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일탈행동에 관련된 최

근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일탈행동에 얼마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밝혀진 구체적인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은 비록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공식적인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고 있지만, 일탈행동으로 쉼터나 교육청에 위탁된 일탈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위탁 청소년이 중 고등학생보다 훨씬 적대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일탈행동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폭력행동에 초점을 두어, 일반 중 고등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무경험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a; Park & Kim, 2001)에서도, 폭력무경험자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은 현재 초, 중, 고, 대학교

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일탈행동 경험 정도와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일탈행동은 부모의 적대, 무관심 및 거부적 태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대학생 집단에서만 부모의 무관심과 자녀의 일탈행동은 거의 상관이 없었는데,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는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Park(2000)은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 분석한 동일한 자료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요인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에서와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의 적대, 거부, 무관심, 갈등은 일탈행동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됨으로써,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적대적 거부적 태도가 자녀의 일탈행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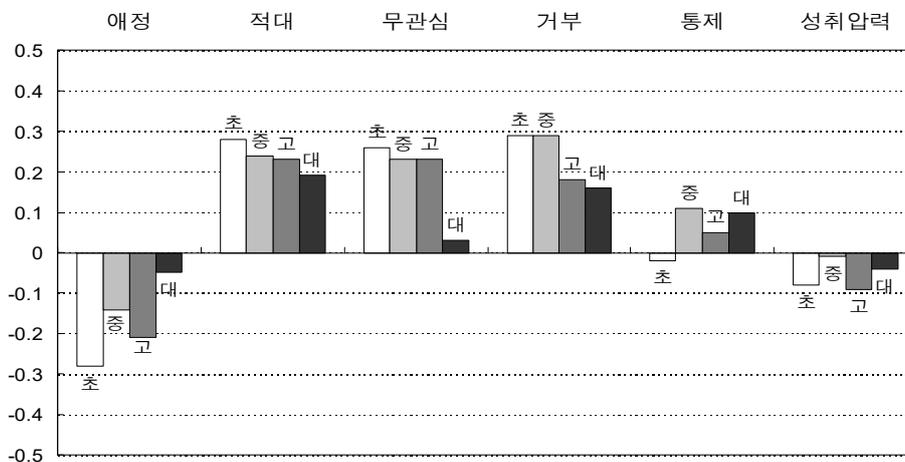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일탈행동: 초,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박영신, 김의철 (2000). p. 132

함으로써, 자녀의 일탈행동이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로부터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탈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성취와 관련된 기대나 압력이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년원생과 중 고등학생을 비교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1998) 결과에 의하면, 소년원생 부모가 중 고등학생 부모보다 낮은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성취행동을 촉진시키지만, 일탈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음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2000)에서 밝혀졌다.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 변인들과 자녀의 심리 행동 특성들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고, 일탈행동과는 다른 요인에 부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 중, 고, 대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을 때도 모

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육태도와 자녀 일탈행동의 요인구조나,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녀 일탈행동의 요인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 행동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요인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은, 어머니의 성취압력,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어머니의 이해정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애정과 같은 변인들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어머니의 거부나 적대 및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그다지 성취와 관련된 기대나 관심 및 성취추구 압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청소년만이 아니라 일탈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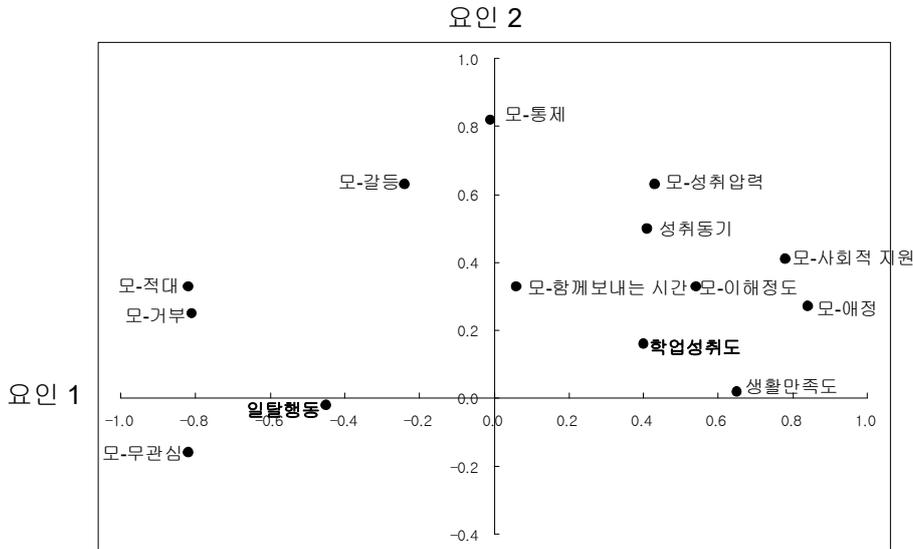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 양육태도의 요인구조: 초등학생

Park (2000). p. 84

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라고 지각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일탈행동 경험의 정도에 따라 부모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다. 예컨대 한기혜와 박영신(2003)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보호관찰 경력별로 비교하였을 때, 보호관찰 재범 경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초범 청소년보다, 어머니를 신뢰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이 적은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탈 청소년들까지 포함하여, 부모로부터의 파스한 사회적 지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믿고 의지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 고등학생의 60% 이상이 '부모'라고 응답하였는데, 보호관찰 청소년도 '부모'(63.4%)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일반 고등학생과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한 것이 그림 3의 왼쪽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의 오른쪽 부분은 보호관찰 청소년 중에서

초범 청소년과 재범 이상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이다. 두 집단 모두 부모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 제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평범한 고등학생이든 심각한 일탈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건 간에 모두, 부모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일탈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독특한 특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관련 변인들을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세 측면이 함축하는 의미와 후속연구에의 시사는 논의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세 측면이 포함하지 못하는 부모자녀관계와 일탈행동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계속 탐구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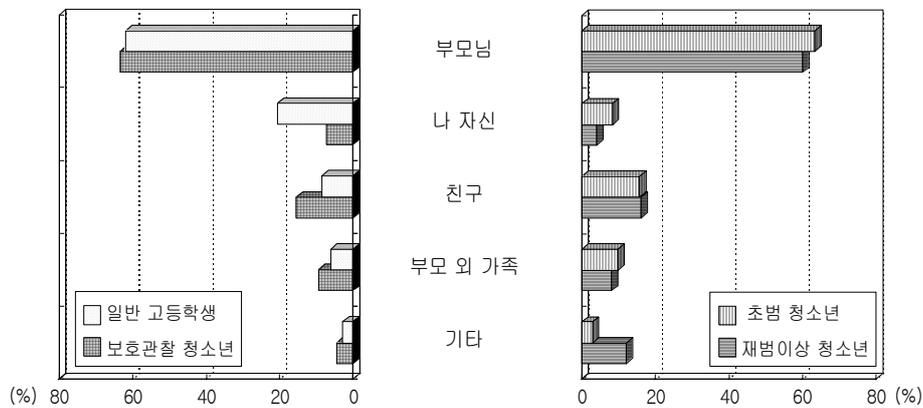


그림 3.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박영신, 김의철. (2004). p. 408

친구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친구관계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중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일반 고등학생과 일탈 청소년 집단 모두, 친구의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며 실제로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발달적 특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에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 및 후기로 나아감에 따라, 아동기에 비해 친구의 사회적 지원과 친구관계가 점차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확인(박영신, 김의철, 2003)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거쳐 중학교 3학년까지 친구의 정서적 지원 변화를 검토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에 의하면, 연령증가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 및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친구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친구의 정서적 지원이 현저하게 높고 그 다음으로 부모 교사의 순서로서, 교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와 양계민(2000)이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원을 횡단자료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됨에 따라 부, 모, 및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친구의 사회적 지

원만 증가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대상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2002)이 도시 초등학교 6학년을 중학교 3학년까지 추적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 모두 감소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농촌 초등학교 6학년을 중학교 3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와 모의 사회적 지원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친구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청소년의 친구 사회적 지원을 연구한 결과만이 아니라, 일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친구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해 주는 경험적 자료들이 있다. 그림 4는 괴로울 때 의논 대상이 누구인지를 응답자가 직접 기록한 결과이다. 일반 고등학생이든 보호관찰 청소년이든 모두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친구'를 지적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4의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초범 청소년과 재범 이상 청소년으로 분류하였을 때에도 '친구'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많았는데, 두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일탈 청소년들도 친구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중요성은 일탈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그림 3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이나 일반 고등학생 집단 모두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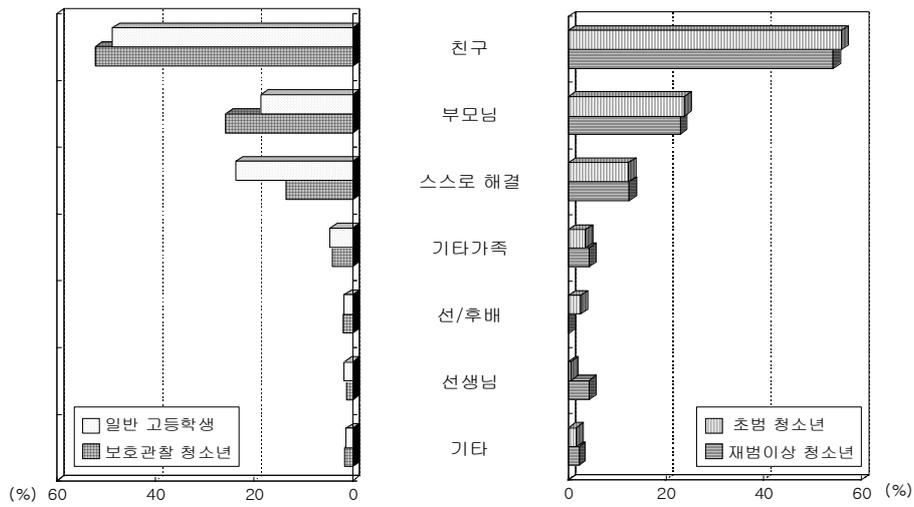


그림 4. 괴로울 때 의논대상

박영신, 김의철. (2004). p. 432

상에서 부모를 가장 믿고 의지한다는 반응을 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두 번째로 '친구'를 많이 지적한 반면에, 일반 고등학생은 친구보다는 '나 자신'을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친구에 대해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록 일반 고등학생과 일탈 청소년 집단이 친구의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고, 또한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사회적 지원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탈 청소년에게 친구와 만나는 장소 및 친구를 만나 하는 일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질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5에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는 PC방이나 오락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면, 일반 고등학

생들은 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두 집단의 친구관계 차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 고등학생 경우는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만나는 또래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의 규율 속에서 움직여지며 선생님의 관리가 있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은 학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C방이나 오락실에는 학교와 같은 교육적인 관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생이나 사회 속에서 적절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직 청소년, 또는 보호관찰 경험이나 소년원 수감경험이 있는 일탈 청소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건전한 학습이라기보다는 오락인데, 매우 폭력적인 게임이나, 성적 자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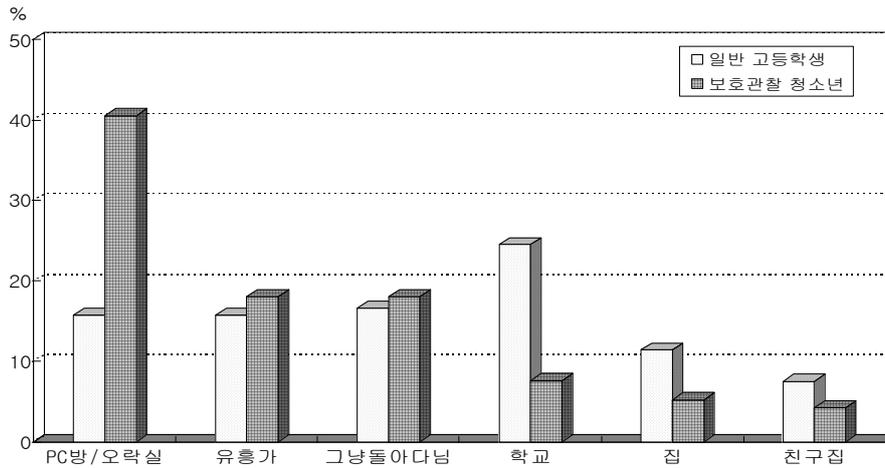


그림 5. 친구와 활동 내용 및 장소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유발하는 불량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과 같은, 건전하지 못한 환경적 자극에 아무런 통제없이 노출되어진다. 그리고 담배라든가 술과 같이 일탈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PC방이나 오락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권장할만한 레크리에이션 장소가 되지 못한다.

일탈 청소년들이 친구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능성은, 가까운 친구들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경력에 대한 검토에서도 시사된다. 예컨대 보호관찰 청소년 중에서 초범 청소년들은 공범 친구의 범죄 경력이 한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5%이고, 재범 이상의 청소년들 경우는 5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별히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 친구가 한명 이상(초범-33.2%, 재범 이상-52.1%)이라든가,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가 한명 이상(초범-20.1%, 재범 이상-20.8%)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제법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약 과반수(45.6%)가, 가

까운 친구 중에 퇴학을 경험한 경우가 한 명이 상이라고 하였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일탈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친구가 많고, 결국 그러한 친구들의 상호 이해와 지원 속에서 도덕적 이탈이 가속화됨을 보여준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이춘화, 1999)에서는, 폭력비행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비행 친구의 수가 많았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에서도, 비행 친구의 수가 많은 집단이 중간이나 적은 집단보다 훨씬 일탈 행동을 많이 하였다. 한편 폭력씨클 가입여부와 학교 관련변인들을 연구한 결과(김준호, 노성호, 곽대경, 1992),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성적 및 학교에 대한 애착은 표준화 판별함수가 부적인 값을 보였지만, 비행친구 수와 처벌친구 수 및 친구에 대한 애착은 정적인 표준화 판별함수를 보였다. 이는 비행을 하거나 학교에서 처벌경험

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또한 친구에 대한 애착이 큰 청소년일수록, 폭력씨클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폭력씨클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이나 다양한 일탈행동에 가입하는 정도가 높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일탈 청소년의 경우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관계를 통해 서로의 일탈행동이 수용되고 고무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호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셋째, 일탈 청소년 집단 중에서도 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 집단의 친구관계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에서 일탈 청소년과 일반 학생들이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탈 청소년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그들의 친구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일탈 청소년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즉 가출, 폭력, 도박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문제행동을 주체가 되어 하는 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의 경우에 친구관계 또는 또래집단으로 구성된 공범관계에서는 정서적으로 강하게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의리'를 지키고 추구한다. 이와 같이 공범 친구들 사이의 강한 유대감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원을, 유유상종의 입장에 처해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결핍된 관계에의 욕구가, 상호 이해되고 수용되는 친구관계로 전이되어, 강한 응집력을 가진 유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보면 거의 공범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범들이 자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거나 친구처럼 가까운 동네 형이나, 선후배 관계인 것

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폭력가해 행동이나 강도 등 여러 일탈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강하게 유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상호 공조가 가능한 공범이나 또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 수감된 일탈 청소년 외에도 일반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사소한 일탈행동에 가입하고 다른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는 청소년들이, 학급에서 소외되고 따돌려진다고 보다 오히려 힘이 있는 '짱'으로 통하며 때로는 '스타'의 위치를 누리면서 또래집단을 장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가해 청소년이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든가,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받는다는가, 금품 등을 빼앗기고 성적 추행을 당하는 등, 일탈 청소년에게 시달림을 받는 피해 집단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탈행동의 지속적인 피해 집단이 유지하고 있는 친구관계를 보면, 일탈행동을 가하는 집단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친구로부터 소위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을 당하고,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청이나 쉼터 등에 위탁된 청소년들은 일반 중 고등학생보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b). 그런데 특히 학교폭력행동 피해자가 가해자나 무경험자보다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더 많이 받았으며, 친구와 따뜻한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가 약하였다(Park & Kim, 2001). 그 결과, 우울증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해집단보다 피해집단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양계민, 정현희, 1999)되었다. 즉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나 일반학생보다 외로움과 우울증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업 및 교사

스트레스와 친구스트레스가 더욱 높았다. 그러므로 피해학생들이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보다도 심리적 적응의 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이 심리 행동 특성과 친구관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서양의 경우(Olweus, 1993)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6은 청소년 쉼터나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들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일탈행동 및 학교폭력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경험이 폭력피해 경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이 폭력가해 행동하고도 그다지 먼 거리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폭력가해 행동은 전반적인 일탈행동이나 학교에서의 처벌경험과도 매우 가까이 위치한다.

이러한 모든 청소년 문제행동들이 부모나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특성으로는 도덕적 이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요인분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려지는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해경험이 결과적으로 폭력가해행동이나 다양한 일탈행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을 경로분석한 결과(Kim, Park, & Kim, 2002; Park & Kim, 2003)는, 그림 6에서 시사되는 가능성들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는 인간관계가 폭력피해경험에 의미있는 경로($P=.29^{***}$)로 연결되고, 폭력피해경험은 폭력가해행동($P=.58^{***}$)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폭력가해행동($P=.36^{***}$)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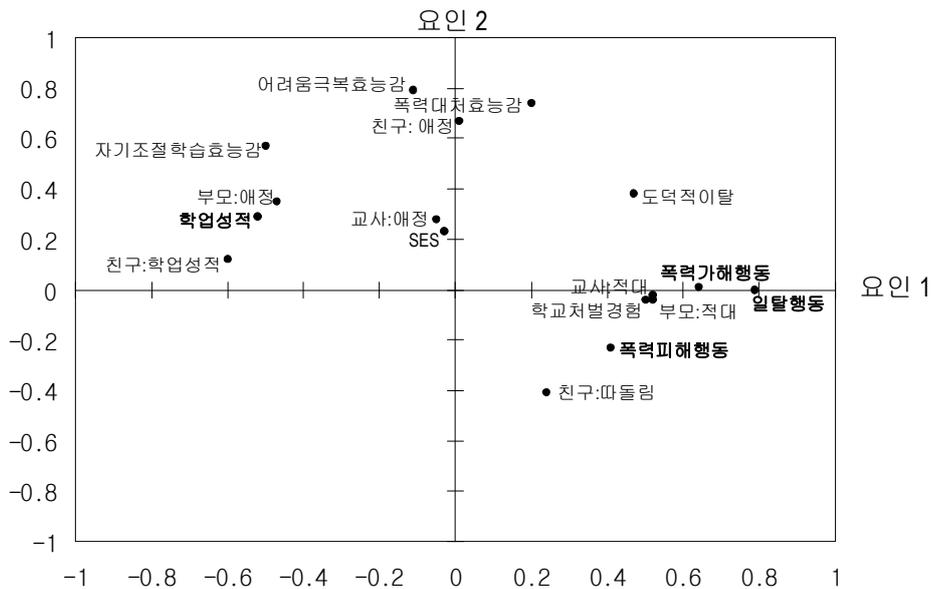


그림 6. 학교폭력행동 관련 변인 요인분포: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

박영신, 김의철 (2001b)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과거의 일탈행동 ($P=.14^{***}$)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경험이 폭력가해행동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를 당해 본 청소년들이 나중에 가해행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폭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일탈행동을 확대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이 폭력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지만, 폭력가해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직접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더불어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유형에서의 차이에 대한 위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

구 결과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사의 사회적 지원이 부모나 친구의 사회적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사의 영향력이 적어진다고 해도, 여하튼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행동과 관련된 요인분포를 검토한 그림 6을 보면, 교사학생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성취행동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즉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심각한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 인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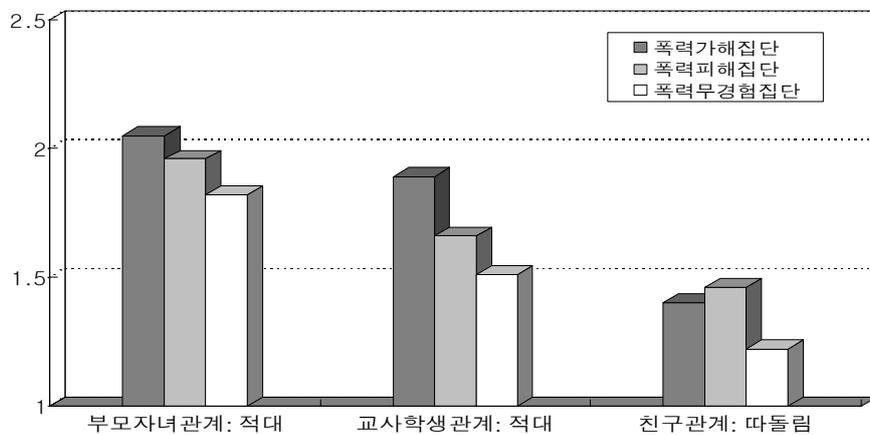


그림 7.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인간관계

박영신, 김의철 (2001a)

인 애정을 갖고 따스하게 대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학업성취를 추구하는 행동과 더욱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이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의 교사학생관계를 비교했을 때, 위탁청소년이 훨씬 교사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일반 중 고등학생들을 폭력가해집단, 폭력피해집단, 폭력무경험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인간관계 특성이 검토되었다. 그림 7에 나타나고 있는 바처럼, 교사학생관계의 패턴은 부모자녀관계의 패턴과 동일하였다. 즉 폭력 가해집단이 교사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그 다음이 폭력 피해집단이었고, 폭력 무경험집단은 교사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둘째, 일탈 청소년들은 일반 중 고등학생보다 교사와 더욱 갈등적인 관계에 있고,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학생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교사학생관계를 단지 적대적인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하위변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예정)의 연구에서, 학교폭력행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일탈행동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교사의 정서적 지원, 교사와의 갈등,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의 왼쪽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일탈행동 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훨씬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과의 갈등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갈등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8의 가운데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8의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동일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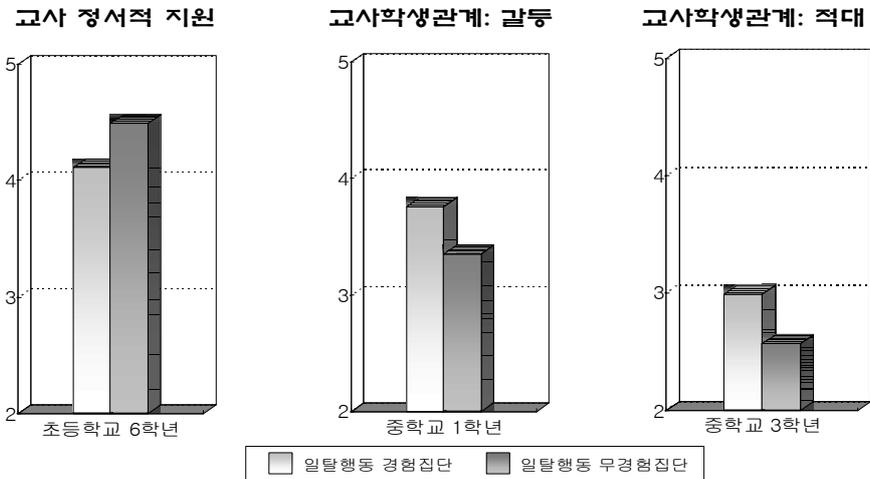


그림 8. 교사학생관계와 일탈행동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

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부모나 친구 및 교사와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탈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변인으로 도덕적 이탈(Bandura, 1995)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분석(Kim, Park, & Kim, 2002; Park & Kim, 2003)을 실시하였을 때, 도덕적 이탈은 폭력가해 행동($P=.15^{***}$)이나 심각한 일탈행동($P=.16^{***}$)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 논의 및 결론

박영신과 김의철(2003)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환경특성으로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개인특성으로서 청소년의 심리특성과 행동특성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하여 여섯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1) 질적으로 다른 두 문화: 반복되는 일탈적 삶의 양식, 2) 청소년기 사회적 지원 감소와 도덕적 이탈 증가의 맥락에서 본 일탈행동 변화, 3)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원으로서 '흔들리는 가정', 4)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촉진자로서 친구관계, 5) 학교교육의 무력화 현상과 청소년 일탈행동: 좌절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에로의 변화, 6) 한국 사회와 문화 맥락에서의 일탈행동: 개방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각.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3)이 제안한 여섯 가지의 논의점 중에서 특별히, '흔들리

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일탈행동의 촉진자'로서 친구관계, '무력한 학교교육'에서의 교사학생관계에 초점을 두고, 일탈 청소년의 인간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인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및 교사학생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련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최근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시사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의 논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영향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탈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의 문제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4)이 최근에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살면서 자기 자신이 멋있고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없다'(36.7%)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였다. 반면에 일반고 학생은 '없다'(5.0%)는 반응을 극히 일부만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때'라든가 '학업성취'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탈 청소년들의 자기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적대적으로 대하고 거부한다는

경험 인식으로부터 싹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와 압력

일탈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성취와 관련된 기대나 압력이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낮은 성취기대나 낮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낮은 포부수준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2)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심리학 관련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Zimmerman, Bandura와 Martiz-Pons(1992)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과거의 학업성취,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자녀의 학업 포부수준을 포함하는 인과적 구조 안에서 검토하였다. 경로분석을 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개인의 목표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학업성취를 촉진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과거 학업성취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높은 포부수준은 자녀의 개인적 목표설정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할수록, 그리고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는 성취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높게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한 연구(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Chung, Choi, Park, & Kim, 2002)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성취기대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의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1998; Park, 2000)에 대한 개관을 통해 파악된 바와 같이, 일탈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가 성취에 대해 낮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낮은 성취도와 결부되게 된다. 일탈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에 대해 관심이 낮고(박영신, 김의철, 2004),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Park & Kim, 1999; 2003)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다. 결국 이렇게 일탈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취를 이루어가는 한국 청소년의 주류문화 집단에서의 역동과는 전혀 다른, 하위문화 집단에서의 역동을 삶의 과정으로 형성해 나가게 하는 주요한 변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주된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1b, 그림 1; 2003)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

부모와 등을 돌리고 사는 일탈 청소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문제는 부모자녀간의 애착형성에 대한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혈연관계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들을 심리적으로 갖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바와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과의 괴리는 일탈 청소년들을 더욱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만약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면, 일탈 청소년의 마음을 상당부분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가서 일탈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관심은, 행동수정이나 보상체계 등을 활용하여 일탈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치료방식보다, 일탈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와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인간관계의 회복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의 회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일탈행동의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홀한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적 환경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일탈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일탈 청소년에게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다. 위에서 선행연구에 토대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일탈행동에 관련된 세 가지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들 각각과 관련된 논의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친구 사회적 지원의 증가와 부모나 교사 사회적 지원의 감소

일반 중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일탈 청소년

들도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며 실제로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사실로부터,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의 영향보다는 친구의 영향이 더욱 증가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친구로부터의 영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있지만, 문제는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부모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신뢰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나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성인의 시각에 토대하여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배려와 나름대로 존중해 주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범생만이 아니라 일탈 청소년도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로부터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 보자.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하지 못한 사고와 행동에 촉진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 경우도 친구로부터 가출 뒤의 생존전략에 대한 정보적인 지원을 받고, 가출의 당위성을 서로 인정하며 위로하고 이

해해 주는 정서적 지원 등, 더욱 정서적으로 밀착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일탈된 행동에 개입한 뒤에 그것을 교정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부모나 교사가 친구 못지 않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를 유지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일탈행동 촉진자로서 친구와 관련된 생활 환경의 개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괴로울 때 의논하며 믿고 의지하는 대상인 친구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검토한 결과, 일탈 청소년이 친구관계를 통해 교류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류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일탈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질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일탈 청소년이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은, 단순히 친구와의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장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친구와 교류한다는 일탈 청소년들은 주로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친구와 교류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삶의 공간의 차이와 그러한 공간에서 접하는 친구의 가치와 태도 및 행동은 쉽게 전이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 다른 환경적 특성은 사람들의 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녁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학업관련 정보를 나누는 풍도와,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 밤늦게 PC방에서 담배 피우며 다양한 일탈행동의 경험을 무공훈

장 달은 듯 빠기며 전수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지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생활공간이 달라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친구관계가 바뀌면, 결과적으로 심리와 행동도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친구와의 관계 교정 그 자체에만 집착하기보다, 청소년이 주로 몸 담고 생활하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탈 청소년 하위집단별 다양한 친구관계 유형

일탈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이나에 따라 친구관계의 특성이 질적으로 다르므로, 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성이나 증상에 적절한 지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폭력피해 집단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피해망상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폭력가해집단의 공격성은 유사한 친구집단의 지지를 받아 더욱 과격한 행동을 누적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피해집단은 친구관계를 통해 따스한 관심과 격려를 받는 것이, 건강한 정신의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친구들과 공범관계를 쉽게 형성하는 가해집단은, 상대 입장에 대한 배려와 온정적 태도를 모델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행동수정이 필요하다.

일탈 청소년의 교사와 관계가 비록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교사와의 관계로부터

시사되는 논의점들 중에서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보려고 한다.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

학업문제 등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일탈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청소년 집단에 적용(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교사학생관계의 측면에서는 일탈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일탈 청소년들은 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이와 반대로 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선생님이 자기에게 잘 대해 준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일탈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한다면, 교사로부터의 교육적인 지도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어야, 교사의 말을 신뢰하며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탈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사의 지도도 일탈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일탈 청소년을 제대로 교육적인 지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학생관계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의 회복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의 회복은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들을 보면, 일탈 청소년들은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반면에 정서적 지원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교사가 그렇게 지각하거나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실제로 어떻게 하든 문제는, 일탈 청소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탈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에 기초하는 불신이 제거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교사로부터의 어떠한 교육적인 처치도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지식은 인간적인 신뢰와 무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과 성실성 등 학습자의 여러 정의적인 측면들, 심지어 교과에 대한 흥미와 동기 조차도 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없이는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의 변인들에 토대하여 예를 들어 본다면, 교사와의 적대적인 관계의 회복, 교사와 갈등의 해결,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확대 등을 우선 열거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탈 청소년들이 교사의 적대적인 행동,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정서적 지원의 결여를, 실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보다 명료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탈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우에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 구체적인 예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예정)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탈 청소년이 교사를 적대적인 관계로 지각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1) 나를 거칠게 대하신다. 2)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난하신다. 3) 나의 행동에 대해 잔소리와 책망을 하신다. 4) 화가 나셨을 때 나에게 심하게 벌을 주신다. 5) 나에게 불쾌한 말을 많이 하신다. 6)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7)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때릴 때가 있다. 또한 일탈 청소년들이 교사와 갈등을 느끼는 경우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에 대해 지나친 압력을 줄 때, 2) 부당하게 체벌할 때, 3) 학생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무조건 결정할 때, 4) 종례시간에 말이 너무 길거나 잔소리가 많을 때, 5)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킬 때, 6) 학생들을 편애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할 때, 7) 심한 욕 등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줄 때, 8) 외모(머리모양, 복장, 신발 등)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할 때, 9)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지루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할 때이다. 그리고 일탈 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데, 그러한 정서적 지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탈 청소년의 입장과 지각을 고려하여, 교사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처벌의 효과에 대한 숙고(熟考)

많은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나 학생을 지도할 때, 잘못을 꾸중하고 처벌함으로써 잘못을 근본

적으로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관찰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위에서 검토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나 교사의 이러한 생각이 매우 단순한 것이고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처벌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속 일탈행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경험이 일탈행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부모나 교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녀나 학생이 잘못하다고 판단될 때 몰아 붙이거나 공격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적어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각했다면, 그것이 부모나 교사의 감정적인 분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스스로 자녀나 학생을 나름대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위로와 착각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청소년에게는 교육적 영향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부모나 교사의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영향 받으며 행동변화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와주는 조력자이고, 청소년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건전한 성취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아무리 기성세대의 판단이 옳고 청소년을 위해 자극을 주었다고 해

도, 그것을 청소년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백해무익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현실은 하나이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현실과 부모나 교사와 같은 기성세대가 지각하는 현실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극단적인 예가, 부모를 토막살해한 명문대학교 학생의 일기(이훈구, 2001)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매우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표현방식과, 청소년의 마음을 감동으로 움직이려는 진지한 노력없이, 부모나 교사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요구란, 청소년으로서는 피부어대는 공격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토착적인 헌신과 인내를 기울임으로써, 자녀가 어느 날 문득 철이 들어가는 과정(Park, 2002)과 같이, 그것이 비록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관계의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성공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기효과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효과라는 것도 있고, 단기투자도 있어야 하지만 장기투자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의 자녀 교육 방식이 서양 어머니의 합리와 이성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용기를 주어 결과적으로 성취를 이루어내게 한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교사학생관계도 냉철한 이성만이 아니라 동시에 뜨거운 감성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따스한 온정을 나눌 때, 학생들은 교사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확대와 같은 인간

적 신뢰가 형성되며, 이러한 신뢰가 기반이 되었을 때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간관계 중심의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진 똑똑한 교사보다는, 지혜를 가진 마음을 움직이는 교사가 더욱 바람직하다. 일탈 청소년들조차도 자신의 일탈행동이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일탈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어떤 청소년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부모나 교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 한마디 안하고도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모나 교사가 옳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강요하기는커녕 표현조차 하지 않고도 청소년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인 것이다. 인간의 삶에 파고들어 마음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일부 엘리트 학자들의 지적인 유희로서의 심리학이나 교육학 이론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세계적인 것이라고 해도,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생명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가정이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론가와 실천가 모두 눈높이 맞추음을 노력하면서, 보다 겸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오나라. (2003). 한국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반미감정의 심리, 사회, 문화적 토대 탐색.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39~178.
-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박대경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 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신. (2003).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2~213.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양계민, 정현희. (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 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 이춘화. (1999).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 이훈구. (2001).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

- 왔나요. 서울: 이야기.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2002년 10월 19일.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중앙일보. (2003년 1월 21일). 내 자식 포기각서 쓰는 부모들.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녀관계에 대한 분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1~326.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66. 2003년 8월 21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한기혜, 박영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5~196. 2003년 8월 22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Chung, K. S., Choi, J. S., Park, Y. S., & Kim, U. (2002).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Kim, Y. H., Park, Y. S., & Kim, U. (2002). School violence of Korean adolescents.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Lee, S. M., Park, Y. S., & Kim, U. (2002a). Trust consciousnes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ost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84.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Lee, S. M., Park, Y. S., & Kim U. (2002b).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in Korea: Indigenous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Conference of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p. 135, October, 12-14.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Japa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Blackwell.
- Park, Y. S.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15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 84. Pultusk, Poland.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speaking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 Psychology. "Making life better for all: A challenge for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 Kim, U. (1999).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role of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Striving for a New Era of Asian Social Psychology" p.10.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Park, Y. S., & Kim, U. (2001).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Paper presented at the 4th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2003).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Korea-Japan Seminar, Tokyo University, Japan.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1 차원고 접수일 : 2003. 8. 21.

최종원고 접수일 : 2004. 3.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Chungang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role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play on delinquent behavior is reviewed. Review of empirical studies reveal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dolescents who perceive their parents as being hostile and rejecting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Second, those adolescents with parents, who have low expectations and who are less likely pressure them to succeed academicall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Third, adolescents who feel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by their parent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Fourth, those adolescents with low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and high social support from their friend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Fifth, those students who feel hostility from their teachers,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experience greater punishment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punishment can have adverse effect on some adolescents, further damaging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unishment can further reinforce the existing negative cycle that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adolescents engaging in delinquent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a lack of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 leads to low academic and self-regulatory efficacy, which leads to low academic performance, which can results in punishments that could further damag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nd teachers and bring them closer to their friends. Adolescents caught up in this negative cycle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reform the relation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dolescents who are engaged in delinquent behavior.

key words :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friends, Teacher-student relationship*